

Session 19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마 7:7-14)

(Persevering in Seeking God's Help)

I. 도입

- A.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와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과 관련되어서 (7:1-20) 산상 수훈의 삶을 살아가기를 추구하는 것에 대해 언급하셨다 (마 5-7 장). 우리의 도전은 우리가 다른 이를 비난하고 싶은 유혹이 들거나 (7:1-5) 다른 이들에 의해 비난을 받을 때에도 (7:6)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6:33)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기를 추구하는 것이다.

33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 (마 6:33)

37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38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마 22:37-38)

- B. 이 구절은 두 개의 중복되는 부분, 즉 관계적인 긴장에 반응하고, 이를 풀어나가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삶의 모습을 유지하는 부분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에 적용된다. 즉, 우리는 우리를 화나게 하고 우리 때문에 화가 난 사람들에게 올바르게 반응해야 한다.

- C.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인내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기도해나갈 것을 말씀하셨다 (마 7:7-12). 기도는 가장 놀라운 특권이며, 높은 곳에 계시는 왕께서 이를 들으신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는 이 특권을 사용하는 것을 잊어버린다.

7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8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 12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마 7:7-12)

- D. 우리는 우리의 육신적인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는 안되며, 우리를 유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구해나가야 한다 (7:7-8).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전심으로 추구해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 관계적인 더 큰 돌파를 추구함에 있어 지속적인 구함과 찾음, 두드림이 필요하다.

1. **구하라**: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간섭하셔서 당신, 그리고 당신과 긴장 관계에 있는 이를 만지시도록.
2. **찾으라**: 팔복을 살아가며 긴장을 해결해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찾으라
3. **두드리라**: 우리의 성장과 화해를 방해하는 방해물(닫힌 문)을 극복하기 위해.

- E. 제자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관계(요 15:5)는 돌파를 위한 열쇠이다. 우리의 연약함을 보기에, 우리는 인내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 기도하며, 그분과의 대화를 계속해나간다.

- F. 심령이 가난한 것(마 5:3)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따라 살아갈 힘이 없음을 인식하는 것이며, 우리의 힘으로 관계적인 문제들을 풀 힘이 없음을 인식하는 것이다.

3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마 5:3)

- G. 믿음은 계속해서 찾아나간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는 모든 것들은 확실히 받게 되어 있으며, 구하는 모든 이들은 찾게 될 것이며, 계속해서 두드리는 자들은 결국 문이 열리고 장애물이 사라진 것을 보게 될 것이다.
- H. 우리에게 항상 경험할 수 있는 더 큰 분량의 은혜가 있다. 이는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은혜이며, 우리를 밝혀주는 은혜이며, 우리를 강건케 하는 은혜이다.

6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약 4:6)

16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 4:16)

- I.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그분과의 더 깊은 관계로 이끄시며, 우리 안에 감사과 겸손, 사랑이 생겨나게 하기 위해 기도를 사용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신다.
- J.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관계의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부족함이 많은지를 보여주시기를 원한다. 형제와 자매에게 나아가기 전에, 우리는 주께서 우리가 상처 난 관계에 어떻게 한 일을 보여주시기를 구해야 한다. 주께서 다른 이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를 보여주시기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낮출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기를 구하십시오.

II.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찾기 (마 7:7-8)

- A.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시간에 그분의 방법으로 응답해주실 것을 앞으로, 인내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되 계속해서 구하며, 찾되 계속해서 찾고, 두드리되 계속해서 두드릴 것을 말씀하셨다. 여기서 사용된 동사들은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으며, 이는 우리가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

7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8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마 7:7-8)

- B. 구하는 것에는 우리가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을 찾되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는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굉장히 귀중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감추어진 보물을 찾듯 찾아나간다.

13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렘 29:13)

4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5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잠 2:4-5)

- C. 바울은 우리가 인내하며 기도해 나갈 것을 말했다 (엡 6:18). 그는 또한 우리가 “분투하며” (롬 15:30) 기도할 것과, “애써 기도하며” (골 4:12), 기도 가운데 “씨름” (엡 6:12)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18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한글 KJV: 모든 인내와 간구로)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엡 6:18)

III.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기 (마 7:9-11)

- A. 자녀인 우리들은 아버지께서 선하신 분임을 확신하며 그분께 구한다 (7:9-11).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관점은 너무도 중요하다. 그분은 우리를 싫어하지 않으며, 하늘의 아버지로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좋은 것을 주신다.

9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10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11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 7:9-11)

- B.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기준에 비하면 인간 아버지는 악하며 이기적이다.

IV. 황금률 (마 7:12)

- A. 예수님께서서는 관계에 대해 계속해서 언급하시며 우리 모두를 “황금률”로 초청하셨다 (7:12).

11 ...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12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마 7:11-12)

- B. 12 절의 “그러므로”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것에 대해 말씀하신 것과 연결시켜준다 (7:7-11). 예수님께서서는 방금 더 큰 돌파를 위해 기도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신 것의 실제적인 적용을 보여주신다.

- C. **하나님 나라의 원리:** 다른 이들이 우리에게 해 주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해주어야 하는 것이다 (7:12). 우리의 행동들은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 지에 의해 결정되지 않으며, 그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대해주기를 바라는 것(7:12)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자비롭게 주시는 지(7:11)에 의해 결정된다.

- D. 사랑은 구약에서 가르친 모든 율법과 예언을 성취한다 (롬 13:8). 진정한 영성은 경건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부드럽게 대하는 것 또한 말한다. 어떤 이들은 기도할 때 천사들처럼 말하지만, 자신을 괴롭게 하는 이들에게 말할 때는 악마와 같이 말한다.

V.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마 7:13-14)

- A. 성도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두 가지 다른 방법으로 추구한다. 어떤 이들은 넓은 길을 택하며 (7:13), 어떤 이들은 좁은 길을 택한다 (7:14).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욱 경험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구하고, 찾으며, 두드림을 통해서 좁은 길로 들어갈 수 있도록 강건해지게 된다 (7:7).

13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대중적임)

14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대중적이지 않음) (마 7:13-14)

- B. 좁은 길은 우리의 육신에게는 어려운데, 이를 위해서는 자기 부인이 필요하며 (마 16:24) 새롭게 된 심령으로 생각하는 것(마 16:23)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23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 가라 ...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24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 16:23-24)

- C.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순종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에 힘쓰며, 노력할 것을 말씀하셨다. 우리는 용서를 얻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우리 마음의 더 큰 돌파를 위해 우리 자신을 세워나가야 한다.

24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에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에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눅 13:24)

- D. 힘쓰는 것은 신약에서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 힘을 쓰지는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여러모로 수고하는 것**에 힘써야 하는데, 이는 우리가 우리의 가족과 친구들과의 관계를 위해 수고하는 것과 유사하다. 여기서의 힘쓰는 것은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만일 우리가 관계에 힘을 기울이는 이 부분에 힘쓰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 힘과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것을 이뤄나가지 못한다.

- E. **잘못된 힘쓰:**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 힘써서는 안 된다 (용서나 받아들여짐을 위해).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바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 힘쓰는 것은 복음의 기초적인 진리를 부인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거나, 우리의 사역이나 생각에 사람들이 반응하도록 힘쓰거나, 그들에게 압력을 가하는 것도 잘못된 일이다.

- F. **성경적인 힘쓰:**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좁은 길로 걸어가기를 힘쓸 것을 부르신다 (마 7:13-14). 우리는 사역의 섬김 가운데 (골 1:29)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힘쓰며 (눅 13:24; 행 24:16; 히 12:4), 기도(롬 15:30)와 연합(빌 1:27)에 힘쓰며,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에 힘쓰며 (히 4:11), 우리 몸을 쳐서 복종하며 (고전 9:27), 하나님께서 나아가기를 힘써야 한다 (빌 3:12-15).

1.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협력해나가기 위해 과격한 결정들을 해나갈 것을 말씀하셨다. 그분은 “우리의 손을 잘라버리며,” “눈을 빼버리는 것”을 말씀하셨다 (마 5:29-30).

29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마 5:29)

2. 바울은 어떠한 타협도 없이 살기 위해 크게 노력했다 (행 24:16).

16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게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행 24:16)

4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히 12:4)

G.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힘쓰기를 거절하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를 힘써나가야 하는가? 우리가 이 부분에 잘못 응답해나갈 때, 우리는 우리를 율법주의나 타협에 들어가게 만드는 오류를 품게 된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힘써야 한다.

11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로 힘쓸지니(여러모로 수고함)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히 4:11)

H. **쉬운 멩에:** 예수님께서서는 마 7:13 절과 마 11:29 절의 말씀에서 서로 상반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지 않는다. 우리는 두 구절을 모두 함께 볼 때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 아래 구절에서의 쉬은 우리의 영혼의 안식을 말하며 우리의 육신의 휴식을 말하지 않는다. 힘쓰거나 노력함은 쉬의 반대 의미가 아니다. 쉬의 반대 의미는 쉬이 없는 것이며 감정적인 혼란과 동요 속에 있는 것이다. 게으른 사람들은 때로 영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매우 쉬이 없기도 하다.

29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멩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쉬을 얻으리니 30 이는 내 멩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 11:29-30)

1. 예수님의 멩에를 메는 것은 그분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아닌, 온유함을 받아들이는 삶을 말한다. 우리는 예수님과 그분의 삶의 모습의 멩에를 메야 한다. 이는 우리의 육신에는 힘든 일이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쉬운 일이다.
 2. 쉬운 멩에는 우리 마음에 평화를 가지는 것을 말하며, 이는 우리가 명성이나 인정, 안락함을 좇아가기를 멈추고 우리의 육신을 부인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위대한 자유는 우리 삶을 향한 예수님의 완전한 뜻과 싸우는 우리 자신의 모든 목적을 포기함으로 우리 마음에 임하게 된다.
 3. 무거운 멩에는 거절감과 두려움, 혼란과 혼동 속에서 사는 것을 말한다.
- I. 우리의 육신에 힘든 것은 때로 우리 마음에 쉬운 멩에가 되기도 한다 (영적, 감정적으로). 우리의 육신에 쉬운 것은 때로 우리 마음에 어려운 것이 되기도 한다 (영적, 감정적으로). 어떤 성도들은 자신의 마음에 “쉬우면서” 자신의 육신에도 “쉬운” 길을 헛되이 찾기도 한다.